

## 병으로 오해하기 쉬운 소아의 증상

# 몽고 반점·푸른 대변 등 ... 병 아닌 일시적 현상

집 안의 아이들이 자라면서 생기는 몽고 반점, 젖이 나오는 현상, 푸른색 대변, 기저귀의 붉은 오줌, 입 천장의 회백색 결절 등은 병이 아니다. 대개는 1년 이내에 자연히 치유되고 없어진다.

부모들은 누구나 처음에는 아이가 크는 것이 신기해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아이와 함께 즐겁게 놀고는 한다. 그러다가 부모 자신과는 다른 여러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고, 혹시 이런 것들이 병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된다. 더구나 요즘과 같이 핵가족화 된 사회에서는 이런 의문에 대해 조언을 해줄 어른들이 없는 경우가 많고, 설사 있다고 해도 부정확한 지식으로 인해 오히려 건강한 아이를 환자로 오인하여 부적절한 치료행위를 함으로써 없던 병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비정상적으로 오인할 수 있는 증상들은 미리 알아둬으로써 이런 일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입 천장에 좁쌀만한 크기의 회백색 결절이 보이는 경우〉** 우선 신생아기에 아기들의 입 천장에 좁쌀만한 크기의 회백색 결절이 한개 혹은 몇개가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엡스타인 진주'라고 한다. 잇몸에도 엡스타인 진주 같은 것이 흔히 보이는데 이것을 정체낭(retention cyst)이라고 한다. 이것들은 구강의 표피세포가 일시적으로 축적되어 뭉쳐보이는 것으로 정상 신생아의 약 85%에서 보이며 생후 수주

내에 아무런 치료없이 저절로 없어진다.

### 생후 1년 내 없어져

〈몽고 반점〉 이름이 특이하여 우리와 같은 몽고계통의 인종에게만 생기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동양인과 흑인의 약 50% 이상에서, 백인은 10% 미만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아기들에 따라서 크기의 차이는 있으나 시퍼런 큰 점이 다리, 엉덩이 등에 군데 군데 보이는데, 몽고 반점은 지능이나 운동 능력 등과 전혀 연관성이 없으며, 몽고 반점이 생기는 이유나 인류학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몽고 반점은 특별한 치료도 필요없으며, 생후 1년 이내에 자연히 없어지기 시작한다.

〈신생아 젖꼭지에서 젖이 나오면〉 신생아의 젖꼭지에서 젖이 나온다면 누구나 놀라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것은 엄마 몸 속에 있을 때 받았던 엄마의 호르몬이 아기 몸 속에 높게 축적되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젖이 크고, 분비물이 있다고 해서 짜주면 오히려 염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 가만히 놔두면 호르몬이

감소되면서 저절로 좋아진다. 엄마로부터 받은 호르몬이 높게 있다가 갑자기 낮아지는 경우에는 여자 아이의 경우 일시적으로 자궁 출혈이 발생하여 월경현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자주 토하는 아이〉 아기가 자주 토하면 어떤 병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잘 먹고, 잘 자고, 특히 몸무게가 잘 늘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기는 큰 아이나 어른에 비해 식도 길이가 짧고 아직 식도가 음식을 위로 보내는 기능이 미숙하며, 식도와 위 사이의 괄약근이 약하여 젖이나 우유를 먹은 후 트림하다가 위 속의 내용물이 쉽게 식도를 통하여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

대부분은 늦어도 생후 6~7개월이 지나면 자연히 좋아진다. 그러나 증상이 심하여 먹일 때마다 매번 구토를 하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뱉어대는 구토를 하며, 특히 체중이 늘지 않고, 구토로 인해 흡인성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한다면 다른 병적인 요인이 있는지 소아과 전문의의 진료와 필요한 검사를 받아 보아야 한다.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넘어가는 부위의 괄약근이 두터워지는 선천성 비후성 유문협착증이

있거나 식도와 기관지 사이의 선천적 연결관의 존재, 소장이나 대장의 부분적 또는 완전 폐쇄 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푸른색의 대변〉** 아기가 푸른색의 변을 보면 '아기가 놀랐다'고 해서 집에서 '기응환'을 먹이거나 심지어는 손가락 끝을 따기도 하고, 장염이라고 병원에 데리고 오기도 한다. 그러나 아기가 잘 먹고, 열이 없으며, 대변 횟수가 하루 3~4회 이하고, 설사가 아니라면 이것은 병이 아니다. 정상적으로 대변 속에 들어있는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공기와 접촉하여 녹색으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특히 분유를 먹이는 경우에 많다. 처음에 변을 볼 때는 변 색깔이 노란색이지만 기저귀를 즉시 갈아주는 것이 아니고, 변을 보고 난 후 어느 정도 있다가 기저귀를 갈 때 변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 갈아주기까지의 시간 동안 변 색깔이 공기 중에서 푸른색으로 변화되어 부모는 변이 처음부터 푸른색인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기저귀의 붉은 오줌〉** 갓난 아이들에서 간혹 기저귀에 붉은 반점 같은 것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이것을 피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다. 냄새를 맡아보면 전혀 피 냄새가 나지 않고, 색상도 연한 분홍색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피라면 응고가 되는데 전혀 응고된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것은 소변 내에 들어있는 '요산'이라는 물질 때문에 붉게 보이는 것으로 피오줌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다. 가끔은 엄마나 아이가 먹는 약 때문에도 소변

색이 붉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처방한 의사에게 문의해 보아야 한다.

**〈숨 쉴 때 거렁거렁 소리〉** 어린 아기가 숨을 쉴 때 가래는 없으면서 꼭 어른들 코 고는 소리처럼 '거렁거렁' 목에서 소리가 나서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이런 경우 기관지염과 혼동되기 쉽고, 심한 경우에는 의사들도 이를 오진하여 기관지염으로 치료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그러나 건강한 아이에서 나타나는 이런 소리는 '후두 천명'이라 하며, 기관지 입구에 있는 후두의 연골이 물렁하거나 덜 커서 생기는 현상이다. 대개 6개월 이내에 없어지며 가끔 더 오래 가는 경우도 있다.

### 분비물 많을때 일시현상

**〈침을 많이 흘리는 경우〉** 침을 많이 흘리면 혹시 지능 박약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을 많이 한다. 신생아 때에는 침샘이 덜 발달되어 있어 침을 흘리지 않다가 대부분 생후 3개월부터 시작하여 7~8개월 때 가장 많이 흘리게 된다. 아이들이 침을 많이 흘리는 원인은 대부분이 입에 고인 침을 잘 삼키지 못하거나 침이 필요량보다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침의 분비가 많아진다.

**〈땀을 많이 흘리는 아이〉** 아기들은 막 낳아서 며칠 동안은 땀이 안 나오다가 보름쯤 지나야 땀을 흘리는데, 배개를 흠뻑 적실 정도로 많이 흘리는 경우도 있다. 아기가 땀을 많이 흘리면 흔히들 어디가 아프거나 허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기

에게 옷을 너무 많이 입히거나, 방을 너무 덥게 하거나, 이불을 많이 덮어 줄 때 체온 조절을 위한 생리적 현상으로, 또는 체질적인 차이로 땀을 남보다 더 많이 흘릴 수 있다. 성장하기 위해 또는 놀기 위해 아이들은 많은 에너지를 쓰며, 그 부산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고, 물의 일부가 소변이나 땀으로 배설된다.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소변 배설량이 적기 때문에 몸 안의 수분이 주로 땀으로 나가게 되므로 정상적인 아이들도 에너지 소모량이 많은 어린 시기에는 땀이 많이 나게 된다. 그러나 커가면서도 계속 땀을 많이 흘리면서 미열이 지속되면 결핵반응검사, 소변과 혈액검사를 시행하여 혹시 병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

**〈배꼽 탈장〉** 선천적으로 배꼽이 튀어나온 아이들이 있는데 이것을 배꼽 탈장이라고 한다. 튀어나온 배꼽을 잘 만져보면 안에서 장이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배꼽 탈장은 만삭아 보다는 미숙아에서 더 많으며, 작은 것은 직경이 1cm 정도, 큰 것은 5~6cm 정도나 된다. 아기가 울거나, 힘을 쓰거나, 감기가 들어 기침할 때 더 많이 튀어나오며, 손가락으로 누르면 쉽게 속 들어간다. 어떤 부모들은 배꼽이 더 튀어나올까 봐 동전을 반창고로 붙이고 다니는데 이렇게 해도 크기가 작아지는 않고 치료 효과도 없다. 작은 것은 대부분 1세가 되면 좋아지고, 큰 것도 5~6세까지는 수술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진다. ㉮

愼泳揆 (고려대 의대 소아과 부교수)